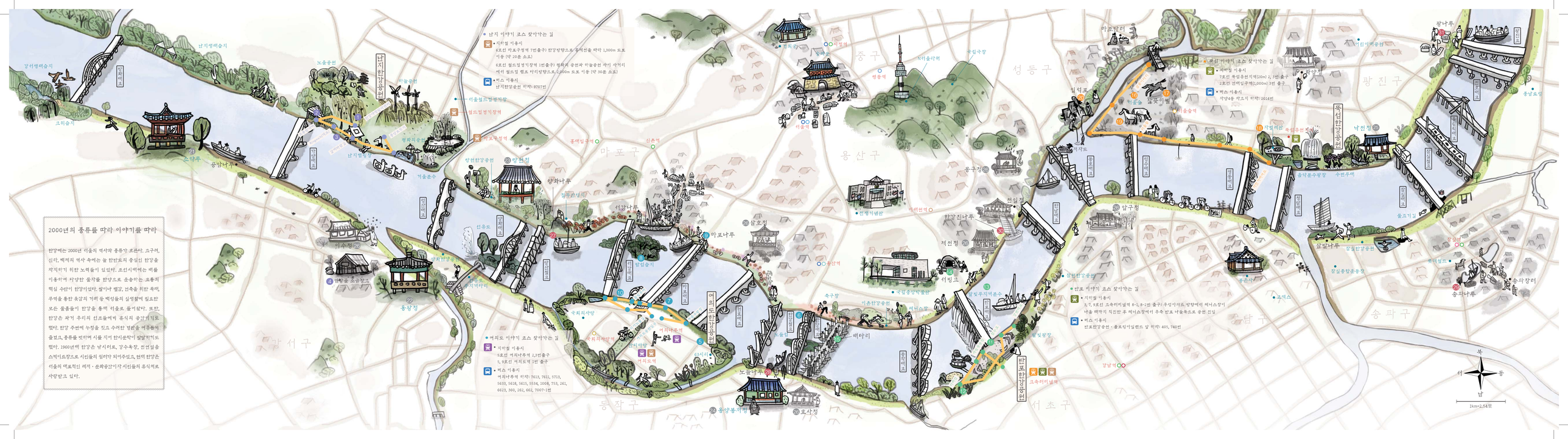

2000년의 풍류를 따라 이야기를 따라
한강에는 2000년 서울의 역사와 풍류가 흐른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 속에는 늘 한강로의 중심인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배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자를 한양으로 운송하는 교통의 핵심 수단이 한강이었다. 삶이나 별감, 건축을 위한 목재, 푸여을 통한 곡감과 거래 등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왔다. 또한, 한강은 차거 우리의 민조들에게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한강 주변에 누정을 짓고 수려한 경관을 여유롭게 즐보고, 풍류를 벗하며 시을 지어 한시문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1960년대 한강은 낙시터로, 강수욕장, 선선철을 스케이트장으로 시민들의 심터가 되어주었고, 현재 한강은 서울의 메표적인 레저 · 문화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남지 이야기 코스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시
6호선 반포주공1단지 1번출구 한강상류으로 동북쪽을 따라 1,300m 도보 이동 (약 20분 소요)
6호선 청드빌딩기장역 1번출구 행화저 유턴와 하늘유턴 사이 사거리에서 청드빌 뒷쪽 타이탄방으로 2,000m 도보 이동 (약 30분 소요)
버스 이용시
남지한강공원 하차: 9707번
여의도 이야기 코스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시
9호선 여의나루역 2,3번출구
5, 9호선 여의도역 1번 출구
버스 이용시
여의나루역 하차: 7613, 7612, 5713, 5633, 5618, 5615, 5534, 1008, 753, 261, 6623, 360, 261, 662, 7007-1번
마포 이야기 코스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시
6호선 마포구청역 7번출구 합정방향으로 동북쪽을 따라 1,300m 도보 이동 (약 20분 소요)
6호선 청드빌딩기장역 1번출구 행화저 유턴와 하늘유턴 사이 사거리에서 청드빌 뒷쪽 타이탄방으로 2,000m 도보 이동 (약 30분 소요)
버스 이용시
남지한강공원 하차: 9707번
반포 이야기 코스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시
3,7,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 우산각라도 방향에서 레이스장이 나올 때까지 직진한 후 레이스장에서 우측 반포 나들목으로 유턴 진입
버스 이용시
반포한강공원 · 올림픽아일랜드 앞 하차: 405, 740번
뚝섬 이야기 코스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시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 우산각라도 방향에서 레이스장이 나올 때까지 직진한 후 레이스장에서 우측 반포 나들목으로 유턴 진입
버스 이용시
반포한강공원 · 올림픽아일랜드 앞 하차: 405, 740번
북
서
동
남
1km=2.54밀

한강이 말 걸다
hangang.seoulstory.org

물로 이루어진 역사책, 한강의 이야기를 오디오 드라마로 엮었습니다.
한강에 담겨진 이야기를 QR로 들어보세요.

## 한강 이야기 지도 읽기

- 2000년 한강의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폭의 풍경화로 담았습니다.
- 이미 사라진 과거의 공간은 흑백, 현재 존재하는 공간은 컬러로 그렸습니다.
- 한강의 4대 코스를 ●——● 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중앙선 분당선 신분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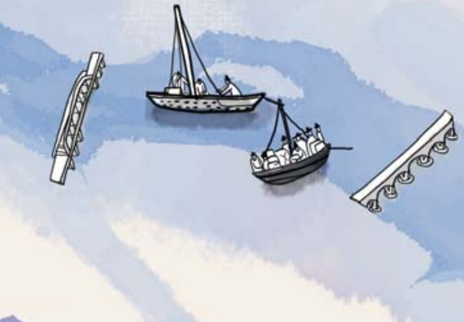
버스

난지공원 여의도공원 반포공원 뚝섬공원
누정 나루

www.seoulstory.org
발 행 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발 행 일 2014년 2월
기획/디자인 (주)브랜드스토리, 명랑행성509
서울특별시

# 한강 물로 이루어진 역사책, 우리의 한강

한강은 거대한 물길이다. 총길이 750㎞, 유역면적 26,018㎢의 한강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와 충청도를 이어주고 황해로 나간다. 기름진 평야를 끼고 흘러 일찍이 신석기 문화와 마한 문화, 그리고 백제 문화 등의 고대 문화가 싹텄다. 또한 한성백제와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젖줄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굵직한 줄기는 한강을 타고 흘렀기에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닌 물로 이루어진 역사책이다. 따라서 한강을 걷는 것은 역사를 여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다.



난지

여의도

## 난지 자연과 함께하는 난지한강공원 이야기

난초와 영지가 많아 난지도(蘭芝島)라 불렸던 아름다운 이 섬은 근대기에는 각광받는 신혼여행지였고 전국 땅콩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땅콩 산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쓰레기 매립지가 되면서 쓰레기 섬으로 불리다가 1992년 복원 운동을 통해 생태 공원으로 거듭났다. 생태습지, 캠핑장, 조각 공원 등이 유명하다.

### ① 한강의 자연 그대로, 한강야생탐사센터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한강 복원의 실현을 위해 세워진 한강야생탐사센터는 한강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에코데이캠프와 자전거하천탐사캠프를 비롯하여, 탐조투어, 한강 미션트레킹, 한강야생동물학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생태 습지와 난지한강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 ② 한강을 찾은 새를 만날 수 있는 조류탐사대

조류탐사대는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교수가 추천하는 탐조명소다. 겨울철이 되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흰꼬리수리, 두루미, 큰고니 등의 철새를 비롯해 계절마다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하기에 좋은 곳으로 새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놀이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다."

-윤무부-

### ③ Ringwalk(데크)를 따라 걷는 갈대바람길

Ringwalk와 갈대바람길은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의 Ringwalk는 수면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걷는 이로 하여금 흐르는 저녁 강물과 붉게 물든 석양 속의 자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와 날아가는 철새들이 어우러진 갈대바람길은 연인들의 프러포즈 장소로도 유명하다.

### ④ 자연의 선물, 염창골

난지한강공원의 맞은편에 염창골이라는 소금 창고가 있다. 소금 더미 보기를 임금님 용안 보듯 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소금이 귀하던 시절, 선조들은 소금이 습기에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의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을 이곳에서 따로 보관했다. 배에 실어 소금을 운반하면 물에 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이곳에 내려 보관한 후 육로로 운반했다.

## 여의도 한강의 기적, 여의도한강공원 이야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 서울에서도 정치와 금융, 언론의 중심지는 바로 여의도(汝矣島)다. 한때 모래뿐인 황량한 땅이라 '너도 섬이냐?'라는 뜻으로 너섬이라 불리던 여의도. 그러한 여의도가 한강 종합 개발을 통해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맨해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 역사를 일궈낸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한강과 관련된 우리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곳 여의도에 담겨 있다.

### ⑤ 기적의 땅, 여의도공원

모래섬 여의도는 일제 강점기에 비행기 활주로였다. 1922년, 비행사 안창남은 이곳에서 귀국 기념 곡예비행을 선보여 최초로 한강 상공을 날아오른 한국인 비행사로 기록되었다. 이후 활주로는 여의도 광장으로 탈바꿈했고, 격동의 시기를 거쳐 방송사, 증권사,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중심지로 비상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다.

### ⑥ 끊어진 한강철교, 그리고 근대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세 개의 교량으로 이뤄진 한강철교를 폭파한다. 그 결과, 수많은 피란민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아픔을 딛고 다시 세워진 한강철교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서정주 시인은 한강철교에 담긴 아픔을 노래하는 시를 지었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 강물은 또 풀리는가.'

-〈풀리는 한강가에서〉 중-

### ⑦ 영화 〈괴물〉의 촬영지, 마포대교

봉준호 감독의 2006년 개봉작 〈괴물〉은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또한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강 마포대교는 바로 이 영화 〈괴물〉의 주요 촬영지 중 하나다. 마포대교 남단에는 서울색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다.

### ⑧ 물빛무대에서 바라보는 밤섬

밤섬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풍류객들을 모았으나 한강 개발 때 폭파되고 만다. 강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고 여기서 얻은 잡석으로 여의도 제방을 쌓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년에 걸쳐 다시 퇴적물이 쌓이고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철새의 낙원이 되었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의 물빛무대에서 바라보는 밤섬의 풍광은 밤섬의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⑨ 경강상인의 중심지, 마포나루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에 마포나루는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강상인들의 중심지로서 전국의 물산들이 집결하는 활기찬 시장의 역할을 했다. 당시 마포나루에서 팔던 갈비, 마포 설렁탕, 마포 주물럭 등은 지금도 서울시민들의 대표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 ⑩ 김훈과 함께 듣는 한강의 노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김훈은 서울 토박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그는 친구들과 여의도 앞을 흐르는 한강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당시 한강은 백사장을 끼고 느릿느릿 평화롭게 흘렀다. 독자들과 함께 여의도 앞 한강을 찾은 그는 한강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예전에 한강은 유역을 굽이치면서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은 양 옆을 막아 놔서 곧게만 흐릅니다. 우리는 한강의 고통을 위로해야 합니다."

-김훈-

반포

뚝섬

## 반포 사람과 한강이 함께 만든, 반포한강공원 이야기

반포(蟠浦)는 청룡산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서리개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음이 변해 반포(盤浦)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반포라는 지명 자체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한때는 침수지역으로만 기억되던 이곳에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달빛 무지개 분수 외에 달빛광장, 서래섬 등 쉼터가 만들어져 새로운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 ⑪ 잠수교의 별명 안보교

한강 둔치와 높이가 같아 비가 오면 곧잘 한강에 잠겨 잠수교라 불리게 된 이 다리는 한국전쟁 후 안보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반포대교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어 폭격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고 또한 교량의 가운데 부분을 기중기로 들어 올리면 바지선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안보교(安保橋)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 ⑫ 편리함보다 공존! 서래섬의 철학

1986년 한강 종합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섬이다. 유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지만 인간과 강의 공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반포의 옛 이름인 서리개에서 따와 서래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메밀꽃 축제로 성황을 이룬다.

### ⑬ 노래하는 달빛 무지개 분수

반포대교에 설치된 총길이 1,140m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특히 야간에 음악과 함께 200여 개의 조명으로 무지개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달빛 무지개 분수로 불린다.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유명 캐릭터 윤지후가 금잔디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무대로 등장, 연인들의 명소가 되었다.

### ⑭ 서빙고와 동빙고

조선시대에는 겨울이 되면 한강의 얼음을 채취해 서빙고와 동빙고에 보관했다. 두 창고의 얼음은 각각 용도가 달랐다. 종친이나 환자들, 죄수들에게는 서빙고의 얼음이 쓰이고, 왕실에서 지내는 제향에는 동빙고의 얼음을 쓰도록 했다. 주로 지금의 합정동 부근과 동호대교 부근에서 얼음을 채취했다. 유속이 느려져 얼음이 잘 얼고, 물이 맑기 때문이었다.

### ⑮ '아버지를 위해!', 정조의 배다리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붕당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평생 그리워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묘소로 자주 참배를 갔는데, 그러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다. 이때 배다리를 놓았다. 배다리란, 배들을 밧줄로 엮어 다리처럼 건널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연산군도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적이 있다. 사냥을 가기 위해서였다. 두 임금이 배다리를 놓은 목적은 사뭇 다르다.

## 뚝섬 역사가 숨 쉬는 곳, 뚝섬한강공원 이야기

예로부터 뚝섬은 풍광이 아름답고 들짐승이 많아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무려 151번이나 임금이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랑받은 사냥터였다. 임금이 사냥을 나와 커다란 깃발(纛旗)을 꽂은 데서 둑도(纛島)라 불리다 뚝섬으로 변했다. 뚝섬의 거대한 말 목장터에는 한국 최초의 경마장이 들어서기도 했고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얼음낚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다.

### ⑯ 서울의 허파, 서울숲

경마장과 골프장 자리에 만든 숲으로 근처의 한강수변공원에는 고라니, 꽃사슴 같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골프장 공간에 조성한 가족마당은 소풍 장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곤충식물원은 어린이들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 ⑰ 끊을 수 없는 부자의 인연, 살곶이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실망하여 함흥으로 떠났다. 그러다 웬일인지 한양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이방원은 기뻐하며 들판에서 아버지를 맞았다. 바로 그 순간 태조는 이방원에게 활을 쏘았다. 이방원이 간발의 차로 화살을 피하자 이성계는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이라며 이방원과 화해한다. 그때부터 이곳을 화살이 꽂힌 땅이라 하여 살곶이벌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놓인 살곶이다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돌다리 중 가장 긴 돌다리다. 현재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 ⑱ 한강을 더 가까이, 뚝섬 자벌레관

2010년 개관한 자벌레관은 숲에 사는 자벌레의 모습을 본 떠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조성된 종합 휴식 문화 시설이다. 세련된 현대 건축의 미와 생태 자연의 의미가 어우러진 곳으로, 개관하던 해 공공건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⑲ 뚝섬의 지킴이, 뚝섬 경마장

뚝섬은 유난히 말과 인연이 깊다. 조선시대에는 군마(軍馬)를 키우는 말목장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1954년에 경마장이 들어섰다. 당시에는 말이 부족해 경주마 대신 조랑말이 달렸고, 경주로에는 채마밭이 있었다. 1989년 과천 경마장 개장으로 뚝섬 경마장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서울숲 공원에는 기수(騎手) 동상들이 남아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 ⑳ 명당 그 자체, 입석포

암석이 강을 향해 깎아지른 듯한 절경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예부터 큰 돌이 우뚝우뚝 서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서 있는 돌, 선 돌이라는 의미에서 이름도 입석포가 되었으며, 옛날 여인들이 어른 키의 3~4배나 되는 돌들을 향해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 누정 풍류와 예술의 물결을 따라 한강 누정 이야기

지금 시민들이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듯, 선조들 또한 한강에 누각과 정자를 짓고 풍류를 읊었다. 한강변에 누각과 정자는 매우 많았으나 현재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용양봉저정 한 곳 뿐이고, 소악루, 망원정, 낙천정 등이 현대에 복원되었다.

### ㉑ 소악루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이 누각은 겸재 정선이 자주 그림을 그리던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삼각산을 배경으로 남산이 가까이 보이고,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정선은 그림을 그리고, 친구인 이병연은 시를 지었다. 빼어난 자연 조건 덕분에 소악루는 문학과 예술 활동의 근거지가 된 것이다.

### ㉒ 용왕정

서울 정도 육백 년을 기념하여 1994년에 복원된 용왕정은 정자 위에 올라 바라보는 경치가 뛰어나 서울 8경에 뽑히기도 했다. 용왕정은 전통의 미학을 현대에 되살린 훌륭한 예로 꼽힌다.

### ㉓ 망원정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의 별장으로, 처음 이름은 희우정(喜雨亭)이었다. 가뭄이 심해 시찰을 나선 세종이 이 정자에 들렀을 때 마침 비가 쏟아졌다. 세종이 반가운 비가 내리는 정자라는 뜻에서 희우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성종 때,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한 월산대군이 희우정을 고쳐 짓고 망원정(望遠亭)이라 이름 붙였다. 전망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 ㉔ 용양봉저정

정조가 수원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현릉원에 참배하러 갈 때, 한강을 건너 잠시 휴식을 취했던 곳이다. 한강을 건널 때 정조는 보다 많은 인원이 통과하고, 왕의 위엄을 보일 수 있도록 수백 척의 배들을 연결하여 배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 정자는 고종 때 〈서유견문〉을 썼던 유길준에게 하사되었다가, 1930년에는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 용봉정이라 불리기도 했다.

### ㉕ 낙천정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지냈던 정자다. 세종은 아버지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이따금 이곳을 찾았으며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태종은 왕실의 체통을 지키지 않는 양녕대군을 이곳으로 불러 야단치기도 했다고 하니, 이곳은 상왕이 된 태종의 집무실이었던 셈이다.

### ㉖ 선조들의 풍류가 서린 한강의 옛 정자들

예나 지금이나 누각과 정자는 한강의 경치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공간이다. 남산의 산색과 한강의 수색이 유별났던 몽구정, 달빛이 부서지는 물결을 바라볼 수 있다던 월파정, 왕실의 별장으로 외국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던 제천정, 한명회가 지은 것으로 유명한 압구정 등 지금은 없지만 선조들의 풍류와 역사가 서린 공간이다.

## 나루 삶과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한강 나루 이야기

한강은 예로부터 수상 교통의 중심이었다. 전국의 세곡이 팔도 각지의 특산물과 함께 배를 타고 한강으로 흘러들었고, 자연스럽게 수상 교통의 거점인 나루들이 발전했다.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서 이야기도 모였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루는 옛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 ㉗ 양화나루

전국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광흥창(廣興倉)까지 운반하던 나루로, 농산물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고, 사대부들의 별장이나 정자도 많이 세워졌다. 그런가 하면 김옥균이 처형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격동의 역사를 품고 있기도 하다. 지금의 합정동 절두산 순교 성지 자리에 있었던 나루터이다.

### ㉘ 노들나루

노량진의 다른 이름으로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 노들이라고 불렸다. 상류의 광나루와 함께 별감이 배치되어 서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게 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던 나루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1900년에는 한강 최초의 현대식 교량인 한강철교가 이곳에 건설되었다.

### ㉙ 송파나루

서울과 광주(廣州)를 잇는 중요한 나루터였다. 나루터보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는데, 조선 시대 전국 10대 상설 시장 중의 하나로 번성하였다. 특히 시전상인의 텃세를 피해 몰려든 일반 상인들이 많았다.

### ㉚ 한강진

송파, 노량과 더불어 삼진(三津)의 하나였다. 고려 시대부터 배가 배치되었고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봉은사로 불공을 드리기 위해 부녀자들도 많이 드나들곤 했다. 연산군이 청계산으로 사냥을 가기 위해 800척의 배를 징발하여 배다리를 놓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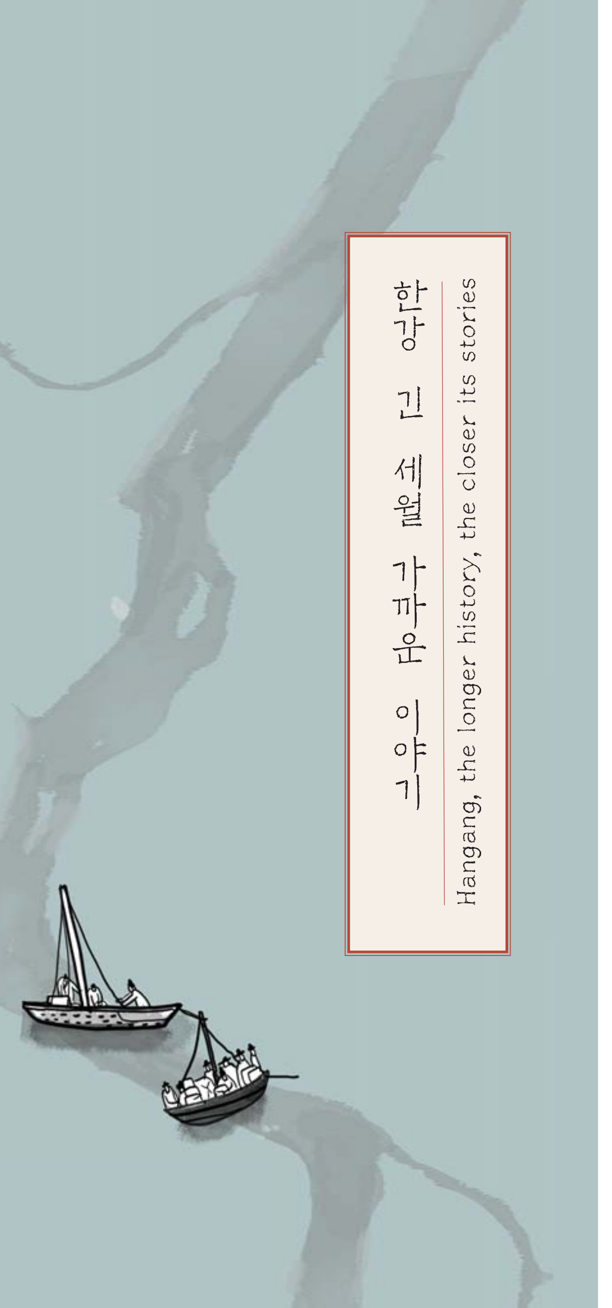
### ㉛ 광나루

한강을 건너는 나루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넓었다. 서울 남쪽, 그리고 강원도와 통하는 거점이었다. 아차산 풍경이 아름다워 문인들이 즐겨 시를 읊던 곳이기도 하다. 세종에서 성종까지 45년간 6명의 왕을 섬기면서 한성판윤을 두 차례나 지낸 학자 서거정은 특히 이 광나루를 사랑하여,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했다.

서울발견 DISCOVERING THE SEOUL STORY

# 한 강

서울 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프로젝트



한강 긴 세월 가까운 이야기

Hangang, the longer history, the closer its stories